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관련 건의문(안)

의안 번호	222
----------	-----

제안년월일 : 1993. 4. 14

제안자 : 한장훈의원외 7인

1. 주 문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은 도덕적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으로 볼때 심각한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어 도민 모두가 본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를 대통령께 건의코자 함.

2. 제안이유

- 도덕적 측면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한 다목적개발이 아닌 일부지역 개발과 특종업종의 사업성 추구, 투기성 요인으로 인한 충돌성 사업효과로 의심되고, 도내 일부지역의 생존권 박탈 등 위험이 초래되며,
- 과학적 측면으로 볼때는 남한강 수계의 수질오염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일부지역의 환경문제가 야기되며, 개발인근지역의 무연탄층 협재로 지하수 개발이 지난하여 생존권의 위험과 피산댐의 부영양화로 남한강 상류를 식수로 하는 일부 도민의 상수원 기능 상실 등으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3. 참고사항

" 건의문(안) 별첨 "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개발관련건의문(안)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새 시대를 맞이하여 격변하는 국제상황에 대처해 나아가며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의 활성화등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충북지역과 인접한 용화지역에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반대의 뜻을 과학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淸淨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남한강 상류에 속리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多지역관련 源水지역에서 라는 측면에서 볼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그것도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다목적 개발이 아닌 일부 지역의 개발과 특정업종의 사업성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관련지구 토지내역을 살펴봐도 투기성 요인으로 말미암은 충동성 사업 추진 효과가 큰것으로 의심되며, 발원지에서 부터 수질오염을 초래하여 하류 일부지역의 생존권 박탈등을 감수하면서 까지 개발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지 확인과 전문교수들의 용역연구를 토대로 해서 볼때 개발지역 자체의 음용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하류지역 자정 능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것으로 예측되어

源水지역에 오염 유발시설을 허가하게 되면 앞으로 대두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전례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학술적 타당성 근거와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 요로를 통하여 일부지역의 생존권 박탈,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의 자명함을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등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11일자로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 집단시설 지구내 시설물 기본설계가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이제는 신한국 창조의 물결속에서 우리 도민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으며, 한편 지역 이기주의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국립대학교수 2명을 중심으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汚水를 3차 처리하여 BOD 10MG/L로 방류하여도 개발예정지 인근인 사담리, 신월리 및 용대천 최하류까지도 3.61MG/L 이상으로 수질이 3~4급수로 악화되는 등 남한강 수계의 수질오염은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북일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둘째, 온천개발 지역의 弗素含量이 기준치의 11배 초과로 음용수 사용이 불가하며 인근지역은 무연탄층 狹在로 지하수개발이 어려워 생존권의 위험이 초래되고,

셋째, 생태계 파괴,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소 및 다수의 청소년 하계수련 시설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넷째, 괴산댐의 富營養化로 관련 지역의 피해와 남한강 상류를 식수로하는 일부 도민의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고,

다섯째, 수질악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감소를 초래하여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기타 상세히 나열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 도민 모두가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건의하오니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 해결을 통해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3. 4. 17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